



천 명신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BK 연구교수)
· jdchun@snu.ac.kr



문화속 수의학(4)

자연에 대한 존중, 아메리카 인디언과 동물

"There is a profound, inescapable need for animals that is in all people everywhere, as shapers of the human mind and thought,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m."

(Paul Shepard, *Thinking Animals : Animals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Intelligence*, 1998)

북아메리카 북서부 해안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웬지 우리에게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원에서 서 있는 장승을 닮은 기둥이다. 이를 토템 폴 (totem pole)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신들에게 의미가 깊은 토템 동물을 새겨 놓은 것으로 지역적으로는 알래스카까지 분포한다. 인디언들은 고유한 문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의 기록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알래스카의 인디언들은 북동 아시아인들과 그 기원이 같다고 여겨지고 있으니 우리와 일말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토템 폴이 주는 친근함은 혹시 고대의 이어짐이 주는 것은 아닐까. 여하튼 이들이 남겨 놓은 많은 회화, 공예품과 조형물 등 시각적인 자료들은 저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동물로 이루어진 토템 폴은 이들이 이야기와 신화와 전설들을 전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이 지역의 인디언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 농사를 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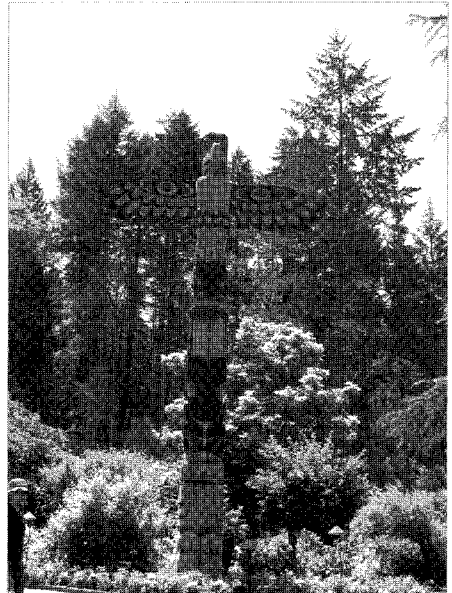


그림 1-1/1-2. 캐나다 빅토리아 근처의 부차드 가든(Buchart Garden) 에 세워진 토템 폴 (사진 : 천명선)

않아도 될 정도여서 오히려 문화 활동을 할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는 이들에게 자연은 그 자체로 어머니이다.

이들 인디언 족은 토템 폴의 수, 담요, 배, 모피, 구리 원반의 수가 많을수록 부자로 여겼다. 이들에게는 유일신이 없었고 제물을 바치는 일도 없었다. 종교가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이나 성전도 없었다. 주위의 모든 것에 혼이 깃들여 있고 이는 사람을 도울 수도, 해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혼들을 성나게 하지 않도록 많은 금기(taboo)가 존재했다. 이를테면, 연어(salmon)는 1년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연어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이 금기를 깰 경우 연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했다.

토템 폴에 앉은 까마귀

토템 폴의 중요한 동물은 까마귀(the Raven)이다. 인디언 신화에 따르면, 아주 옛날 한 곳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다. 오빠는 다른 존재가 이 평화를 깨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동생은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여동생이 길에서 작은 알처럼 생긴 자갈을 발견하고는 삼켜버렸다. 길에 자갈을 계속 떨어져 있었고 여동생은 큰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돌을 주워 먹으며 길을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곧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가 태어났다. 오빠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여동생은 아이를 숨겨 키우

며 늘 오빠가 아이를 죽일까 노심초사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여동생은 숲 속의 동물들과 의논해 특별한 교육도 시켰다.

후에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오빠는 아이를 숲에 보내 나무를 해오라고 시킨 후 나무를 쓰러뜨려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돌에서 비롯된 이 아이에게 나무 정도는 해를 끼치지 못했다.

오빠는 다시 홍수를 일으켜 아이를 빠뜨리려고 했고 저항하던 아이는 결국 날아 올라서 지칠 때까지 하늘을 떠다니다 구름에 부리를 박고는 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나길 기도했다.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온 까마귀는 그 후로도 많은 모험을 겪게 된다.

일설에는 하늘로 올라간 까마귀가 태양의 딸과 결혼해 땅이 드러날 때까지 하늘에 머물렀다고도 한다. 이렇게 하여 까마귀는 창조와 지

식을 상징하며 빛의 전달자로 여겨졌다. 토템 폴의 다른 동물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버는 힘과 모성과 교육을 독수리는 강한 힘과 리더쉽, 위신을, 개구리는 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며, 매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범고래는 여행자이며 보호자로 선함을 상징했다.

수달은 신뢰와 밝음, 충실한 우정을, 올빼미는 지혜를 뜻한다. 연어는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공급자로 여겨졌으며 천둥새는 권력 있고 신비로운 지도자였다.

늑대는 지식과 리더쉽, 그리고 가족애를 상징했다. 동물들은 실제의 모습 그대로 묘사되기 보다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토템 폴에서 표현되었다.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인기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배경이 되는 시애틀의 병원에 걸려있는 액자들에서 위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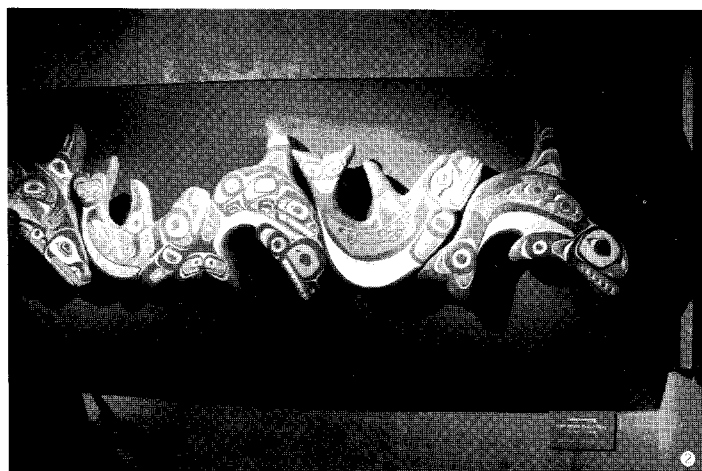


그림 2. 시애틀 아쿠아리움 전시물. 범고래 토템 문양의 활용함(사진 : 천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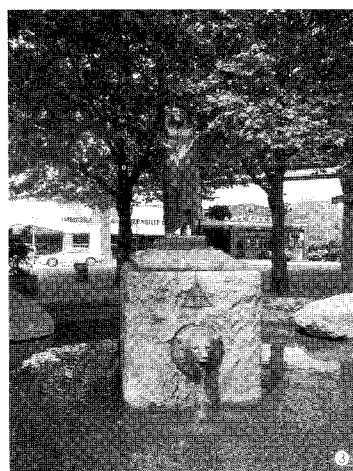


그림 3. 시애틀이라는 도시명은 이 곳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의 추장의 이름에서 유래했다(사진 : 천명선)

북아메리카 세네카족의 메디신 버드
(Medicine Bird)

치료 행위와 동물이 관련된 전설도 전해온다. 옛날 세네카족의 한 사람인 '피묻은 손(Bloody Hand)'은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사냥을 해서 잡은 사슴고기를 잘게 잘라서 새들과 늑대 같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가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게 되었다(아메리카 인디언은 전리품으로 죽인 상대에게서 머리 가죽을 벗긴다). 하늘에서 이를 본 새들은 회의를 열었다. 머리 가죽만 되찾아 올 수 있다면 그를 살릴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은 후 매를 보내서 적이었던 전사의 집 문에 걸려있는 머리가죽을 가져오게 했다.

그 동안 새들은 옥수수를 자라게 하고 그대를 부러뜨려 안에 있는 피를 취하고, 호박덩굴을 만들어 그 씨를 얻는 등 약의 재료를 준비하고 그 효능을 테스트했다. 약이 완성되자 박새가 그 약을 먹고 죽은 자의 입으로 들어가 위에 그 약을 뱉어놓고 나왔다.

다른 새들은 그의 몸을 문지르고 노래를 불렀다. 결국 깊은 죽음 속에 빠져있던 새들의 친구는 노래를 들으며 죽음에서 깨어났다. 깨어난 그에게 새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이 만든 약을 주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하라고 알려주었다.

약을 사용할 때는 모두 모여서 담배를 피우며 지상의 모든 동물과 새들이 그 냄새를 맡도록 하면 약의 효과가 커진다고 했다. 다시 살

아난 '피묻은 손'이 집으로 돌아와 그 사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 유럽인들이 들어온 시기까지도 이 부족에서는 전통처럼 전해지던 치료법이었다.

한 고고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지역의 토속 민간 치료에서 새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특정한 종류의 새의 전체 혹은 한 부분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드는데 가끔은 새 동지 같은 새와 관련된 소재들도 이용되기도 한다. 고대인들은 왜 새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새 우는 소리가 죽음의 신을 멀리 쫓아버렸다는 모티브는 세계 각국의 전설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고구려 벽화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 문화에서도 새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신령한 존재였다.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개 달린 동물이 주는 신비로움이 이들을 영험한 존재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집트 신화의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한 신으로 종종 매의 형상으로도 그려진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지혜의 신임과 동시에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멀리 볼 수 있는 매의 눈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도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는 신의 능력을 뜻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는 호루스의 눈을 부적처럼 지나면 나쁜 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박한 부족의 토탐이든 고도로 발전했던 고대 문명의 신화이든 인간이 동물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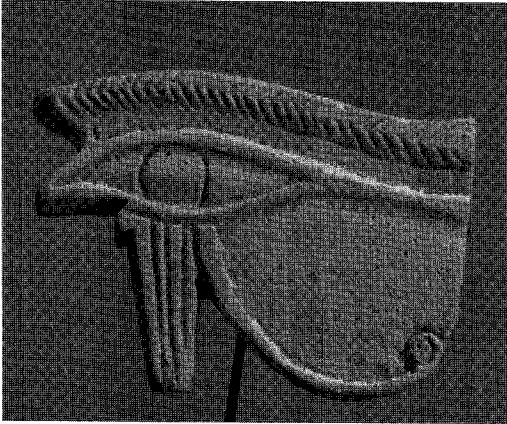


그림4. 호루스의 눈(Wikipedia, 6th-4th centuries BC, 루부르 박물관)

‘동물토텐’을 설명하는 모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미개 부족의 종교적 행태’라는 설명을 읽었다. 자연을 존중하고 동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고대인들의 생각과 문화와 종교가 과연 ‘미개 부족’의 것으로 치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위험한 표현이다. 